

이주현 · 이부영의 논문 ‘주역 점(占)의  
실제 체험’에 대한 박연규 교수의  
논문평(심성연구 38(1), pp208-224)에 관하여(2)

A Response to Professor Park YG's Commentary  
(Sim-seong Yeon-gu, 38(1), pp208-224) on the Article:

Lee JH and Rhi BY;

The Actual Experience of the Oracle of the I Ching (2)

이 부 영\*

이 논문은 저자 이주현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체험하고 생각한 바를 성찰한 일종의 체험기이다. 학술논문보다 에세이풍의 주관적 체험기로 ‘길’지 같은 곳에 실어서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고 했는데 ‘심성연구’에서 관심을 보여 실리게 되었는데 초기에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말고는 지도한 것이 없는데 내 이름이 공저자로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연구원의 오랜 규칙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좀 더 철저하게 지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도 든다. 어쨌든 이 논문은 이주현 단독논문이고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비합리적 직관과 센스, 감정이 이른바 합리적, 학문적 고증 방식으로 경직되지 않은 채 표출된 글이다.

내가 처음에 이 글을 보고 에세이의 범주로 발표해도 좋다고 한 것은 이 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절절한 감정이 느껴졌고 그 와중에 무의식의 의도를 찾아보는 태도가 진지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융학과 분석가가 주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한국융연구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Bou-Yong Rhi, M.D. Ph.D., Jung Institute of Korea, 122 Seongbuk-ro, Seongbuk-gu, Seoul 02837, Korea

Tel: +82-2-3673-2550, Fax: +82-2-743-5649, E-mail: cgjukorea@naver.com

를 촉진시키고 싶은 마음도 이에 가세했다.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 주역 해석의 전문가, 박연규 교수의 논평을 받게 되어 배우는 바가 크다. 용이 빌헬름을 통해 동양사상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한국의 전통사상의 연구자들의 고견과 관점에 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분석심리학은 그 고유의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상징적 해석법'이다. 우리에게도 동양고전의 상징 이해에 잘 어울리는 주석서가 필요한데 주역의 경우, 나에게도 아직 빌헬름의 독일어 번역이 제일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임 괘에 관한 빌헬름의 설명을 좀 자세히 읽었더라면 그 괘가 지닌 심리학적 상징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논문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다.

동양고전의 전문가가 있듯이 꿈의 해석에 관해서는 융학파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해석법이 있다.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이주현의 꿈 해석은 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른바 '저승의 꿈'에서 하얀 문에 상징에 관한 확충은 한 가지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점을 진작 지적해 주었어야 했는데 왜 놓쳤는지 모르겠다. 하얀색은 많은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고, 압트가 말했듯 '칠해 저야 할 빈터'일 뿐 아니라 동양의 전통에서는 하나의 목표, 도달해야 할 경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흑백갈등을 극복한 절대 자유, 절대 평화, 한마디로 무위 자연의 경지다. 서양전통에서는 연금술의 백화(白化), albedo의 상태, 즉 그림자를 극복한 상태를 상징한다. 저승에 들어가는 하얀 문은 저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얀 마음'(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세, 그림자 투사를 거두어드리고 이를 통합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있다. 저승의 첫 방이 백화의 과정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와 꿈의 자아는 저승이 왜 격리병동인가 하는 의문보다 아버지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저승의 첫째 방은 사자가 환자로서 철저한 내향적 성찰을 하도록 강요된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저승의 전부가 아니고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Albedo 다음에 rubedo가 있듯이, -저승에 관한 많은 민족과 개인의 체험들을 확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저한 내향화에 충실하려면 꿈도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즉, 주관단계의 해석말이다. 이 꿈은 꿈꾼 사람의 저승, 즉 무의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그는 선입견 없이, 아집을 버린 마음의 상태로 무의식을 대면하여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부정 콤플렉스를 만나야 한다. 그것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철저한 내향적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무의식의 탐구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